

바닥 찍었나... 광주 상가 공실 개선, 총장로는 '침체 그늘' 여전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 17%...전 분기보다 0.6%p ↓
호남 최대 상권인 총장로는 28→31%로 하락세
전남 주요 상권은 빈 점포 늘어 중대형 공실 14.1%

코로나 사태 이후 이어진 경기 악화로 지역 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늘어가던 광주지역 상가 공실 문제가 다소 개선됐다. 다만 과거 '호남 최대 상권'이었던 총장로 일대는 여전히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광주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흐름과 달리 전남의 주요 상권은 빈 상가가 계속해 늘어나는 등 쇠락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광주지역 주요 상권 10곳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0%로 전 분기(17.6%)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중대형 상가는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상가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20대 젊은층 사이에서 '핫플'(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첨단1지구 상권은 공실률이 7.3%로 전 분기(13.7%) 대비 6.4%포인트나 감소했다. 오랫동안 계속되던 경기침체의 여파를 딛고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 대표적인 신도심 상권인 상무지구 역시 16.8%로 전분기(18.3%)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하는 등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대학생들로 붐볐던 전남대학교 상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분기 44.6%로 직전 분기(48.7%)보다 4.6%포인트 줄었다. 중대형 상가 절반이 비어있을 정도로 공실 문제가 심각했던 전남대 상권 역시 올해 들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다만 호남 최대 상권으로 꼽혔던 금남로·총장로와 금호지구 상권만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실이 증가했다.

금호지구는 전 분기 7.6%에서 올 1분기 7.7%로 공실이 소폭 증가한 반면 금남로·총장로 상권은 같은 기간 28.0%에서 31.0%로 3%포인트 늘며 30%대 벽이 무너졌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광주의 대표 상권이 총장로 일대를 제외하고 사정이 조금 나아진 것과 달리 전남지역 주요 상권은 공실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남 주요 상권 12곳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전분기(13.1%) 대비 1%포인트 증가한 14.1%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순천 원도심 상권은 지난해 4분

기 25.4%에서 29.7%로 4.3%포인트 공실이 늘어 30%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여수 원도심은 27.2%에서 27.7%로, 목포 구도심은 20.6%에서 22.3%로 빈 상가가 더 늘었다.

광양읍 상권도 16.3%에서 18.8%, 하당 신도심은 10.4%에서 13.8%까지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권이 쇠락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실이 감소한 곳은 여수 여문 상권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여수 여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분기(12.9%)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11.7%를 기록했다.

변용일기자

의대교수 휴진...광주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 이용" 당부

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0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경증 환자들은 동네 병의

원,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는 종합병원,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국 활짝 핀 제주

전국적으로 때 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인 2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활공원을 찾은 이들이객이 활짝 피어난 수국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수회담' 신경전

여 "李대표, 민생 진심 지켜볼 것" 야 "윤, 국정기조 대전환 답해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콜센터(129), 심평원(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시 및 자치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 등이다.

인터넷은 보건복지부, 시·자치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누리집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활용하면 된다.

현재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 속에서도 진료 일선을 지키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최근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다음 주 휴진 찬반 여부를 묻는 의견 수렴 과정을 갖기로 했다.

앞서 전공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4월29일~5월3일) 중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 등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의 공백을 메우기 교수들은 주 70~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체력적인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욱수 복지건강국장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진료에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해야 한다"며 "경증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형택기자

여야가 28일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촉구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정쟁용 회담이었는데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일 영수회담 전망을 두고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말 민생을 위한 안전벨트가 테이블 위로 올라간다면 2, 3번 못 만날 일도 없을 거다. 이번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전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독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슬비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 · 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